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1,350억 원 신규융자지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1%대 금리로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
- 모집공고 및 신청('24. 2. 29. ~ '24. 4. 3.)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주요 업종·공급망별 맞춤형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3.4. 월), 대전(3.5. 화), 울산(3.6. 수), 여수(3.7. 목), 대구(3.8. 금)

** 맞춤형설명회 신청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에서 신청 가능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4242)

□ 사업 목적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용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기여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 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방법 : 취급은행(대여약정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주요 내용

- (지원규모) '24년 총 2,216억원 (신규 지원 1,356억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대, 중견, 중소)
- (지원분야) 시설자금, R&D자금
- (용자비율)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 (용자한도)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이내, 최대 3년 지원가능(시설자금 500억 원 이내, R&D자금 10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p 차감 (단, 대기업은 1.5%p 차감) * 전담기관에서 공시
- (대출기간) 최대 10년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요 일정

- ①사업 공고·접수(2.29.~4.3.) → ②기술성 평가(4월중) → ③지원 확정·통보(5월초) → ④자금 신청·심사·대출 → ⑤사업수행 및 성과조사